



출간한 이후 열렬수행을 놓지 않은 석산 스님은 88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대웅전 앞 소나무의 푸르름을 느끼게 한다.

석산 스님(石山·88)을 뵈러 간 것은 청명을 앞둔 이른 봄날 오후였다. 남쪽에는 때 이른 여름 날씨로 호들갑이었지만 삼각산 산중은 아직도 진달래가 겨우 꽃봉오리를 뿜은 정도. 성북동 길을 따라 아스팔트 산길을 한참 오르니 아치형의 정법사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도심이라고는 하지만 속진은 닿지 않는 듯 새들과 산짐승들이 기지를 먼저 반긴다. 청설모 한 마리가 재를 지내고 마당에 고수레로 내놓은 밀감 하나를 들고 날째 소나무 꼭대기로 치타아 올랐다.

몇 해 전 삼좌 법진 스님이 불사를 마친 대웅전 바로 앞에서 대략 40년쯤 되었다는 조실재가 어색한 조화를 이루며 비껴 앉았다. 그 앞에는 스님의 나이 만큼 이 산을 지켜온 소나무 한그루가 버티고 있다. 대웅전 앞에 서면 범종각 너머로 서울 시내가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어 산속에 자리 잡은 도심사람의 묘한 매력을 느낀다. 그 사이로 역시 40년 전쯤 신도들의 시주로 세워졌다 '나무옹화미륵존어래

불' 입상이 5m 높이로 솟아 있다. 그 뒤로 아담한 산신각도 구색을 갖췄다.

석산 스님이 주석하는 조실재는 시멘트로 만든 낡은 슬래브 지붕에 녹슨 함석 처마가 세월을 말해주는 누옥이다. 요사 안으로 들어서면 좁은 나무마루를 사이로 침실과 작은 서재가 펼쳐졌다.

서재에는 방금 전까지 붓글씨를 쓰다 만 두 벼루에 먹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그대로다. 가지런히 놓인 지묵과 먹물을 뒤기 위해 알맞은 크기로 잘라 찌꺼기씩 쌓아둔 휴지는 정갈한 스님의 평소 성격을 말해주는 듯하다.

한가한 오후의 정적을 깨고 패종시계만 '똑딱딱딱' 거렸다.

얼마 전 미수를 갖 남긴 노정은 나름대로 정정한 모습이었다. 마침 손수 머리를 다듬으셨지만 손에는 면도기가 들려 있었다. 삭발을 했지만 속 피부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나름대로 스님 스타일을 고집하는 탓인 듯했다. 기자가 까닭을 묻자 부끄럽

소나무 닮은 米壽의 소년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석산 스님 (서울 정법사 조실)

다는 듯 "맛이지 뭐"라며 허허 웃으시다. 아직도 장난기 많은 소년의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건봉사서 魚山 배워 일가 이뤄

석산 스님은 17살 나이에 건봉사로 입산 출가했다. 전생의 인연이 두터웠던 탓일까. 스님은 당시를 "집이 싫었고 오직 중이 되는 것만 머릿속에 가득할 때"였다고. 건봉사에서는 강원에서 경을 보면서, 어장스님에게 열법을 배웠다.

"그때는 어찌나 신심이 나던지, 경전이든 열법이든 뭐든 한번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속속 들어왔거든요." 일단 머리를 깎고 나니 절집의 모든 것이 익숙했다. '만일열법회'로 유명했던 건봉사에서 '석산이 열법을 제일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어산(魚山)을 공부했다. 열법은 후천적인 요인보다 선천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데, 스님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목소리를 타고 난 덕분인지 조계종에서는 보기 드물게 어산의 일가를 개척했다. 그러나 기력이 쇠진해진 지금은 그저 옛일이다.

해방되기 전인 1944년 해회전문학교 교수를 지낸 은사 보광 스님의 부름을 받고 서울 가회동포교당에서 노전소임을 맡게 됐다. 망월사 해인사 법어사 등에서 수행하던 중, 60년에 은사스님이 입적했다. 은사스님의 가회동포교당을 정리하고 삼형제 약수가 솟았다는 삼각산 복천암(福泉庵)자리에 절을 세우고 생전 처음 주지를 맡은 것이 지금의 정법사다.

열법·사경 그리고 소박한 공양

정법사는 조선의 옛 군사들이 도성을 지키기 위해 진지를 쌓았다는 삼각산 구진봉(舊陣峯)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지금은 고급주택들이 즐비해 절 입구까지 도로가 낳지만 40여 년 전 성북동은 아카시아 숲이 우거져 산 아래는 보이지도 않았다.

요즘은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 군인들이 절 주위를 지켜주고(?) 있다.

스님의 건강비결은 규칙적인 일과와 하루도 거르지 않는 열법과 기도 수행의 힘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낭랑한 목소리로 열법을 시작한다.

"요즘도 빼놓지 않고 아침 예불은 <천수경> 한편을 외고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합니다. 저녁에도 천수경과 장엄열법을 하는데 대략 1시간쯤 걸려요.

그러나 빨리 하던 금방입니다. 그렇지만 예전 같은 목소리는 안 나와요."

낮에는 잉크펜으로 대화노트에 빼곡히 <금강경>을 사경하고, 경내에 불일 붓글씨도 손수 쓴다.

젊은 시절부터 소시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 반드시 하루 3번 공양을 거르지 않는다. 공양주 보살이 가져온 저녁 공양상을 얼핏 훑어봤다. 밥은 그릇의 1/3을 담았고 된장국과 도토리묵 두 조각, 배추김치 조금에 나물 두어 가지다.

해가 산 너머로 사라진 저녁 5시 30분, 부목 처사가 종루에 올라 종을 울린다. 따-영-긴 공명(共鳴)이 도회의 중생들에게 퍼져 나간다.

공양을 마친 스님은 어떤 주변의 소리에도 무관심한 듯 불편한 걸음을 이끌고 천천히 대웅전 주변을 포행하기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정근에 몰입한다. 모진 풍상에도 변함없는 대웅전 앞 소나무와 출가사문으로 미수(米壽)의 세월을 꽃꽂이 살아온 스님의 굵은 허리를 보면서 문득, 스님이 삼각산의 소나무들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범종의 '공명' 처럼 스님의 열법소리가 무겁고 낮게 주변을 흔들었다.

스님은 대웅전 30바퀴를 돌고 천천히 부처님께 합장 반배하고 말없이 처소로 걸음을 옮기셨다.

글=조용수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소량의 정갈한 식사가 건경의 비결이다.



대화노트에 빼곡히 써내려 가는 <금강경>.

"시주물 허투로 쓰지 말라" 경책

석산 스님은 1919년 강원도 명주군(지금의 강릉)에서 태어난 석산 스님은 37년 건봉사에서 보광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56년 법어사서 동산 스님으로부터 비구계 수지했다. 평생 명예를 좇지 않고 열법과 기도로 출가자의 본분을 충실히 했다.

삼좌 법진 스님은 "80년대 중반 상좌와 인도 부처님 4대 성지를 다녀온 것 외에는 외국을 나가 본적이 없다"며 "평생 신도들의 시주가 허투로 쓰이는 것을 경계하며 후남들을 경책했다"고 말했다. 77-91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성북동 정법사에 주석하고 있다. (02)762-0774

http://ad.buddhapia.com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학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입금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부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 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부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부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분별 놓을때 불성 드러나

석산 스님의 가르침

조주 스님이 '개에게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오는 한 스님에게 '무(無)'라고 했습니다. 그 까닭을 아세요? 요즘 불자들은 이미 알음알이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들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선학원은 한국불교의 근간인 선수행 전통을 이어온 곳입니다. (서재 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 걸려있는 편액 '신해행증(信解行證)'은 선학원에서 이사장을 오래 했던 석주 스님이 40여 년 전에 써 주신 겁니다. 바르게 믿고 이해하는 바를 바르게 행해야만 깨달음을 증득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지는 머릿속에서나 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실천할 때 나오는 겁니다.

바로 믿고 이해하고 행하라

조주 스님이 '무'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이나 하면 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분별 불성이라는 건 뒤를 것이 없는데 증상은 욕심의 티끌에 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목숨을 걸고 정진해야 합니다. 정진을 하거나. 열불을 하거나. 경을 볼 때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황급하고 절박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건봉사에 있을 때 조실로 있던 반해 스님도 이 '무'자 화두를 주셨습니다. '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수행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출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예를 빠지고 중담지 못한 행동을 하는 도반들을 보면 그렇게 보기 싫고 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면 미운 것도 고운 것도 없어 시비가 없습니다.

부산 범어사에서 노전을 보며 후학들에게 열불을 가르치던 시절 만 4년을 동안 스님을 모시고 산적이었어요. 제 평생을 제대로 증노릇 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준 힘은 당시 동산 스님과 같이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동산 스님의 원력과 신심은 그 어떤 스님네도 못 따라 갑니다.

큰 절 조실이라 하면 대개 '해태심(解怠心)'이 생기기 마련이어서 예불에 빠지거나 대중들과는 잘 생활하지 않는 것이 예사인데 동산 스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불은 절대 빠지는 법이 없었고, 항상 대중보다 30분 먼저 각단에 예배하고 대중전 상단에 턱 하나 앉아 계셨어요.

아침공양이 끝나면 언제나 조실스님이 먼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합니다. 사중의 제일 어른이 비질을 하는데 대중들 가운데 누가 빠지고 열의를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에게 동산 스님은 걸음걸이 하나, 손동작 하나 까지도 따르고 배워야 할 큰 스승이었습니다.

살 한톨에 시주 공덕이 일곱근

하지만 날마다 마당을 쓸고 뒤는데 뭘 쓸게 있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스님은 늘 마당을 쓸어내는 것으로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공부는 뒤를 것이 있거나 없거나 출가한 이라면 항상심으로 늘 자신을 갖고 닦아야 한다는 것을 말없이 행동법으로 보여 주신 겁니다.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 없다가 얽매이지 말고 그러한 분별을 놓아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뒤를 것이 없는 불성의 참 이치를 깨달으라는 큰 가르침을 모르고 조주 스님이 '무'자 화두만을 가르쳤다고 우기는 우매한 증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증노릇이란 것이 집이 아주 무거워요. 출가하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에게만 효도하면 되지만 일단 출가를 하면 부처님과 뜻 증생들에게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직업을 갖지 않고 신도가 가져다주는 것을 먹어야 하는 처지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시은을 갖기 어렵거든요.

고승들은 후학들을 경책하기 위해 늘 '백미 한 톨에 시주공덕이 7근'이라고 했습니다. 신도가 가져오는 쌀알 한 톨에 갖든 공덕의 무게가 그 정도인데 어떻게 합부로 시주를 쓸 수 있겠습니까?



계율을 잘 지키고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정해 매일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석산 스님.

지계와 수행으로 선군 닦아야

수행자가 한 생각 잘못하면 부지는 것은 신도와 죄짓는 것은 중이에요. 그저 짧은 스님들을 경책하기 위해 하는 소리라고 흘려들지 마세요. 출가해서 시은을 못 갔으면 그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우리 증생은 욕심을 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욕심으로만 살려고 하니 불성이 흐러지고 닦아 내야할 먼지가 두터워져요. 이것이 한생에 끝나지 않고 업장으로 남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럴 수록 출가자나 재가자나 가릴 것 없이 계율 잘 지키고 매일 자신의 근기에 맞게 일정한 수행법을 정해 선군을 닦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지키기 어려우니까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가자가 시주자의 은혜를 갚는 길은 물론 도를 이루어 증생을 구제하는 것이 첫 번째이겠지만 먼저 계(戒)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심이 있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며, 끈기 있고,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서 계는 스님은 물론 재가자에게도 가장 근본 덕목입니다. 특히 출가 수행자가 계를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중이 아닙니다. 시은을 무심게 여길 줄 안다면 절대 계행을 청정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늘 수행 할 것을 당부합니다. 제가 불자들에게 제일 많이 권하는 것이 열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자리 들기 전 <천수경>과 '나유미타불'을 지성으로 하면 그 공덕은 비할 데 없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열불하는 가운데 부처님의 기호가 오고, 신심이 바로 서 내 삶이 넓어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정리=조홍수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0>



아난존자와 결혼하는 법(2)

그토록 사랑하는 아난과 맺어주겠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마등의 딸은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정말 아난 스님과 저를 결혼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런데 아난은 보다시피 머리를 깎고 마다할 수 없었던 마등의 딸은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등은 제 손으로 딸의 그 삼단 같은 곱고 윤나는 머리칼을 잘라주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소박한 옷차림으로 승원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대체 아난의 어디가 그러도 좋냐?" "저는 아난의 눈도 사랑하고, 코도 사랑하고, 입도 사랑하고, 그 음성도 사랑하고, 그분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사랑합니다."

사랑에 들뜬 그녀는 이렇게 조복조복 제 마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똑같이 눈물, 콧물, 침, 땀, 똥, 오줌 같은 것들이 들어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사랑스럽다고 느꼈던 것일까? 아난 스님의 그 준수한 이목구비는 다 어디로 갔을까?"

마등의 딸은 자기가 집착한 것에 대한 실체를 아주 천천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기만 할 것 같았던 대상이 알고 보니 덧없고 괴로운 속성을 띤 것이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 자기 자신도 그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상에 정신을 집중시키며 관찰하고 깊이 생각을 이어가자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던 아난의 이미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덧없기 그지없는 아난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자 마등의 딸에게는 모든 생명의 바탕에 흐르는 법칙을 바라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너를 놓아줄 테니 아난의 방으로 가 보아라."

하지만 마등의 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주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대해 깊이 생각한 마등의 딸 자기가 집착했던 것의 실체 깨닫고 출가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 네가 그러도 사랑한다는 아난의 코 속에는 뭐가 들었지? 또 아난의 귀 속에는 뭐가 들었고? 네가 그리 안고 싶어 하는 아난의 몸속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 어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느냐?"

마등의 딸은 머리를 쇠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기는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눈에 비친 아난의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고 하여 부부를 이루기는 하지. 그런데 그들의 사랑이란 대체 무엇일까?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가 섞여 아이를 만들고 생명처럼 애지중중하다가 누구든 먼저 결을 떠나면 그 아쉬움과 외로움에 평생 허탈한 눈물을 흘리고 말지 않더냐?"

마등의 딸은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토록 잘생긴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빼앗은 그 남자의 몸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녀는 천천히 사람의 몸이란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준수한 청년이건 절세미인이건 천하박색이건 한 꺼풀 벗겨내니 그 속에는

"제가 참으로 어려워서 아난 스님을 좇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 감감한 길을 헤매다 등불을 만난 것 같고, 난파당하여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리다가 강 기슭에 이른 것 같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뭘 가 의지할 것을 붙잡는 것 같아 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를 다 떠난 성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젊은이에게 특신출가의 길을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지금 정신없이 빠져들고 있는 대상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난과 마등의 딸은 지난 5백 세 동안 부부의 연을 맺어왔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그 인연을 진리 속에서 행제의 인연으로, 도반의 인연으로 맺어주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마등의 딸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아난을 환속시켜 행할 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여 한 사람의 지아비 대신 수많은 도반을 얻은 그녀의 선택이 그리 순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미형(중국역경원 역경위원)

개산 1325년 맞이 호국영령들을 위한 위령제 및

2006 고운사 산시음악회

◆ 일시: 4월 22일(토) 오후 6시 30분
◆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경내

개산대제 기념법회 및 위령제 (오후 2시)

출연진: 장시의, 한영애, 안지환, 정경화, 아담법석, 정윤스님, 정유탁

후원: 경북 의성군,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 말사 신도회, 고운사 신도회

문의: **고운사 054)833-2324** www.gounsa.net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정품)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밝고 길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건전지용 초 방생, 탐불이 행사용
▶ 청사조종 및 초종 같이대

연 등 (정품)
법당용(공동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불등, 특수등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